

# 현대 아트퍼니처의 개념정립 및 전개에 관한 연구\*1

최 병 훈\*2

## A Study on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Concept for Art Furniture

Byung-Hoon Choi

### 목 차

- |                          |                        |
|--------------------------|------------------------|
| 1. 서 론                   | 3. 현대 아트퍼니처의 유형 분석     |
| 1-1 연구목적                 | 3-1 조형예술의 표현매체로서 아트퍼니처 |
| 1-2 연구방법 및 범위            | 3-2 디자인의 개성 추구로서 아트퍼니처 |
|                          | 3-3 일품공예로서의 아트퍼니처      |
| 2. 아트퍼니처의 개념형성과 전개과정     | 4. 결 론                 |
| 2-1 시원적 단계 (1860-1900년)  |                        |
| 2-2 개념정착 단계 (1900-1960년) |                        |
| 2-3 발전적 단계 (1960-2000년)  |                        |

### ABSTRACT

Modern Art Furniture has been represented new idea and energy for futuristic furniture design by interacting and confronting with 3 points of view, which are; the idea and emotion of art, the form and concept of design, and the technique and materials of craft.

Besides, meanings of modern Art Furniture are also can be described as followed. First, extend of concept of furniture design area to art, second, help to raise the social status of people by making art to be popularized, third, present a new direction of futuristic furniture design culture.

Art Furniture design area, which has been trying to make a constant approach to human consideration and sensibility, leads new furniture design culture as an independent art genre in this 21st Century.

\*1 이 논문은 2001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목조형가구학과, Department of Woodworking & Furniture design, College of Fine Arts, Hong-ik University, Seoul 121-791, Korea

## 1. 서 론

### 1-1. 연구목적

‘furniture-related art’, ‘fantastic furniture’, ‘product art-sculpture’, ‘furniture-as-art’ 그리고 ‘artist-furniture’ 등, 최근 디자이너나 아티스트들에 의한 조형성이 강조된 가구경향을 지칭하는 이와 같은 표현들은 그 경계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즉, ‘기능’과 ‘예술’이라는 두 영역이 틀을 벗어나 혼합됨으로서 어떠한 혼란이 나타났다.<sup>1)</sup> 그러나 가구가 기능성과 상징성을 내포한 원초적인 개념을 넘어, 좀 더 확장된 개념의 예술성을 획득하게 된 것은 근대디자인의 출발과 함께 이루어졌고 20세기 근대디자인의 주된 관심사였던 ‘인간의 감성과 사고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에 의한 생활의 변혁’이라는 주제와 함께 부단한 발전을 해왔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가구는 조형예술의 새로운 표현 매체로서, 또 때로는 디자인의 창조적인 작업의 결과로서 그 예술성의 영역을 확장시키며 다양한 모습들로 표현되어졌다. 기능만을 앞세운 생상품으로서의 산업 가구와는 구별되며, 작가의 창조적 의도가 함축된 예술품으로서의 가구에 대한 해석들을 총칭하는 용어로서 아트퍼니처(Art Furniture)의 의미는 그만큼 다양하며 관심과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본 연구는 20세기 근대 가구 디자인사를 거슬러 올라가며 아트퍼니처의 시원 및 전개과정을 연구하고, 현대 아트퍼니처의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아트퍼니처의 개념정리 및 그 의미를 도출시키고자 한다. 또한 20세기의 기계테크놀러지에 의해 탄생된 근대사회가 21세기에 이르러 다시금 전자테크놀러지에 의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시점에서 가구디자인의 새로운 영역의 확장으

1) Denise Domergue, Artist Design Furniture, Harry N. Abrams, New York 1984, P.26

로서 아트퍼니처가 거론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1-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아트퍼니처의 초기 개념이 형성된 시기를 19세기 후반으로 보고 그 이후부터 현대까지를 연구의 시기적 범위로 설정하며, 가구 디자이너와 공예가들의 아트퍼니처를 비롯하여 가구를 매체로 한 작품들을 통하여 아트퍼니처의 개념을 공유한 아티스트들의 작품도 연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아트퍼니처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찾기 위하여 먼저 근대 가구디자인사를 거슬러 올라가며 조형성이 강조된 가구작품들을 중심으로 전개과정을 정리하였으며, 다음으로 작품 성향에 따른 현대 아트퍼니처의 유형 분석을 통하여 작업의 내용과 작가의 이념적 기반 등의 특징을 연구하였다.

또한 다양한 작업형태에 의해 완성된 아트퍼니처에 대해 비교, 분석함으로써 작업형태와 작품의 특성에 대한 상관관계를 제시함과 동시에 현대 아트퍼니처의 미적 가치 및 위상을 재정립한다.

연구의 방법은 먼저 국내외의 전문 서적에 의한 문헌 고찰과 수년간에 걸쳐 수집한 현지 자료들, 박물관 및 전시회 참관, 작가들과의 직접적인 만남 등의 실증적 방법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 2. 아트퍼니처의 개념형성과 전개과정

### 2-1. 시원적 단계 (1860-19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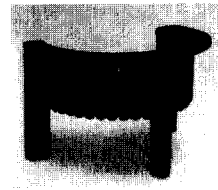
용도에 적합한 기능성과 사회계급을 나타내는 상징성은 근대 이전까지 가구의 본질적인 목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여기에 가구가 실용도구인 동시에 실내의 아름다움을 조성하는 요소로서, 또는 예술창작의 대상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아트퍼니처의 초

기 개념이 형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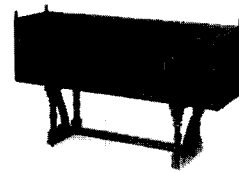
이러한 인식은 1860년 이후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 1834~1896)를 중심으로 한 ‘미술공예운동(Arts & Crafts Movement)’에서 처음 시도하였다. 당시 산업화의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난 미술공예운동은 기계를 부정하고 중세 수공업으로의 복귀를 주장하며 Art와 Craft의 결합을 시도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인간의 삶의 가치를 추구하였다. 윌리엄 모리스는 존 러스킨(J. Ruskin 1819~1900)의 예술민주화이념에 힘입어 유용성 있는 예술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실내에 사용되는 가구 및 생활용품은 예술가의 손에 의해서, 혹은 예술가의 감독 하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2)</sup> 그의 이러한 사상은 가구를 비롯한 생활전반의 모든 용품들을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함으로써 현실화되었다. 또한 화가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Dante G. Rosetti 1828~82)와 에드워드 번 존스(Edward Burne Jones 1833~98). 건축가 필립 웹(Philip Webb, 1831~1915)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의 공동작업(collaborative works)으로 가구를 제작함으로써 가구에 고도의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도는 기능적 요구에 충실한 가구 형태 위에 당대 최고 화가들의 회화작품을 장식적 요소로 도입함으로써 예술성 높은 가구디자인으로 나타났다.(그림 1, 2)

윌리엄 모리스를 비롯한 당대 아티스트들의 이러한 작업들은 비록 형식적인 면에서는 중세를 이상향으로 하는, 전통적인 수공예 제작방식에 의한 기능적인 것들이었지만, 현실과 괴리되어 있던 예술을 생활전반으로 응용함으로써 ‘순수예술(fine art)’ 과 ‘기능적 가구(functional furniture)’ 의 두 영역

2) 여기에서 그가 말하는 예술가는 모든 예술 장르를 동등하며, 동질로 보는 개념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화가, 조각가, 수공업가, 디자이너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그림 1) Designed and painted by William Morris, Chair, 1856.



(그림 2) Designed by Philip Webb and painted by William Morris, Cabinet, 18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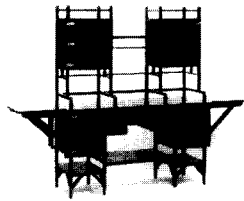
을 혼합시키는 최초의 시도란 점에서 아트퍼니처의 시원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아트퍼니처(Art Furniture)’란 용어 역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1868년 건축가이자 당시의 영향력 있는 비평가였던 찰스 록 이스트레이크(Charles Locke Eastlake, 1836~1906)는 그의 저서 『Hints on Household Taste』<sup>3)</sup>에서 ‘아트퍼니처(Art Furniture)’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며<sup>4)</sup> 당시 새로운 스타일의 가구로서의 아트퍼니처 유행 현상과 이를 취급하는 상점들, 그리고 다른 가구들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가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sup>5)</sup> 같은 해 영국에서 발간된 정기간행물 『Works, 제23호』에서 윌리엄 모리스가 쓴 「Arts, Wealth and Riches」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도 일반적인 가구 제작자와는 구별되는 아트퍼니처(Art Furniture)

3) 이 책은 건축을 포함하여 가구, 타일, 카펫, 그리고 작은 장식품에 이르기까지 당시 실내장식에 예술적 영감을 제공하였으며 새로운 스타일-예를 들면 ‘new Renaissance style’, ‘neo-medieval’, ‘plank construction’, 그리고 ‘Art Furniture’와 같은-에 대한 제안들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4) James Wheeler외, The History of Furniture, Orbis Publish Ltd, London, 1976. P.241 참조  
Charles Boyce, Dictionary of Furniture, Facts on File Publications, New York, 1985. P.14-15참조

5) Charles L. Eastlake, Hints on Household Taste, Dover Pub, New York, 1866. P. 91 P.208 P.214 참조



(그림 3) William Godwin, Sideboard, 1877.

제작자의 사회적 인식에 대해 언급 하면서 아트퍼니처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sup>6)</sup>

한편, 1860년대와 70년대에 윌리엄 고드윈(William Godwin)을 중심으로 하여 중세풍의 복고적인 가구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난 “Art Furniture Movement”<sup>7)</sup>에서는 가구제조에 있어서 산업화를 거부하였던 미술공예운동과는 다른 입장에서 기계생산의 불가피한 과정은 받아들이되 기존의 평범하고 상업적인 가구와는 격을 달리하며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의식적인 탐구가 있었다. (그림 3)

이와 같이 1860~70년대에 사용되었던 ‘아트퍼니처’ 라는 용어는 당시 미술공예운동의 영향으로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예술성 높은 일련의 가구들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당시 유행하던 네오 고딕이나 복고풍의 역사주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즉 가구디자인에서 새로운 조형의 모색에 따른 결과로 아트퍼니처가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1860~70년대의 아트퍼니처 현상은 현대 아트퍼니처의 개념과는 그 시대정신과 표현 양식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당시의 시대상황을 고려해 볼 때 100년 후에 나타나게 되는 ‘멤피스(Memphis)’의 충격 못지 않은 새로운 양식으로 대중에게 체감되었으리라 짐작된다.

2-2. 개념정착 단계 (1900~196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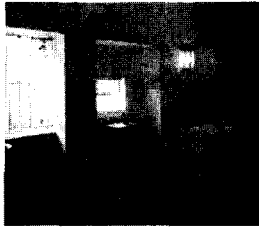
미술공예운동의 영향이 대륙으로 확산되면서 자연주의 양식을 모든 생활환경에 적용시키며 나타난 아르누보 역시 ‘기계를 이용한 예술의 실용화’를 꿈꾸며 양질의 가구를 생산하였지만, ‘예술’의 의미를 ‘장식’ 위주의 개념으로만 적용함으로써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의 맥킨토시(Charls Rennie Mackintosh, 1868~1928)에 의해 실내요소로서 조형성이 강조된 가구디자인이 등장하면서 가구는 좀 더 확장된 예술성을 획득하게 된다. 일례로 1902년 힐 하우스의 <White bed room>에서 보여지는 <등받이 높은 의자(Ladder back Chair)>는 의자의 기능과 더불어 실내공간에서 독립된 조형물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가구의 새로운 미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4) 이와 같이 실내공간에서 조형성과 상징성을 함께 추구하고 있는 <등받이 높은 의자(Ladder back Chair)>는 현대 아트퍼니처의 개념을 한층 구체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 2-2. 개념정착 단계 (1900~1960년)

1917년부터 1931년까지 현대미술사에서 커다란 흐름을 형성했던 추상미술운동인 데스틸(De stijl)의 대표적 작품 <적청 의자(Red & Blue Chair)>는 몬드리안의 회화에서 보여지는 평면상의 구성체계를 3차원 공간에 입체로 재구성하여 가구에 적용하였다.(그림 5) 삼원색과 무채색, 수직·수평선 등 직선적인 요소만으로 순수 조형적 형태를 추구한 이 작품은 테오 반 데스부르크(Theo van Doesburg, 1883~1931)의 해석처럼

이러한 측면에서 1860~70년대의 아트퍼니처 현상은 현대 아트퍼니처의 개념과는 그 시대정신과 표현 양식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당시의 시대상황을 고려해 볼 때 100년 후에 나타나게 되는 ‘멤피스(Memphis)’의 충격 못지 않은 새로운 양식으로 대중에게 체감되었으리라 짐작된다.

- 6) Nikolais Pevsner, Studies in Art, Architecture and Design, Victorian and After, Princeton University Press, New Jersey, 1968, P.121참조
- 7) 윌리엄 고드윈(William Godwin)과 찰스 이스트레이크(C.L.Eastlake) 그리고 T. L. Colclutt, Bruce Talbert, Christopher Dresser 등과 같은 디자이너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였으며 고딕 스타일과 일본 양식이 혼합된 단순하고 절제된 양식의 가구를 선보임으로서 당시의 일반적인 가구와 차별화되었다. Charles Boyce, Dictionary of Furniture, Facts on File Publications, New York, 1985. P.14-15 참조
- James Wheeler외, The History of Furniture, Orbis Publish Ltd. London, 1976. P.240참조



(그림 4)

C. R. Mackintosh,  
White bed room and  
Ladderback Chair, 1902.



(그림 5)

Gerrit Rietveld,  
Red & Blue Chair,  
1918

추상적이면서 현실적인 조각(abstract-real sculptures)' 8)으로 새로운 가구 조형을 보여준다. 또한 추상미술의 표현적 특성만이 아니라 추상미술에 내재된 시대정신과 사고를 반영하는 총체적인 예술작품으로 공간에 배치됨으로서 인간의 물리적 욕구와 미적 감수성을 자극하는 심리적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 생활 속에서 체험되는 예술적 경험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이 후 현대 디자인에서 나타나는 조형주의적인 흐름을 유도하는 근원이 되고 있으며 현대 아트퍼니처에서 '가구로 표현되는 순수 조형미' 추구에 대한 효시적 작품이다.

이러한 경향은 1920년대 프랑스 아르데코 가구디자이너들에 의해 더욱 풍요롭고 흥미 있게 전개된다. 아르데코 가구 디자이너 에일린 그레이(Eileen Gray, 1879~1976)의 걸작 중 하나로 꼽히는 <Pirogue> 소파는 일본인 옷칠 장인 소가와라(Sougawara)와 이



(그림 6) Eileen Gray,  
'Pirogue' Day-Bed, 1920

나가끼(Inagaki) 등과 공동 작업을 통하여 제작한 것으로 아프리카의 영향을 받은 조각적인 형태 위에 금박과 옷칠을 하여 완성하였다.

8) Karl Mang, History of Modern Furniture, Harry N. Abrams Inc, New York, 1979. P.102~104 참조

(그림 6) 이 작품에서 디자이너의 조형감과 장인의 기술이 이루어낸 완벽한 조화는 가구를 높은 예술적 경지로 끌어올림으로서 현대 아트퍼니처의 기본 개념을 완성하고 있다.

### 2-3. 발전적 단계 (1960~2000)

이렇듯 19C 후반 미술공예운동에서부터 싹트기 시작한 아트퍼니처의 개념은 실내공간에서 가구의 조형성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전개되었으며 2차 대전 후에 전개된 사회적, 예술적 경향에 자극을 받아 더욱 직접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9)

1960년대에 이르러 미국과 영국에서는 국제적인 공예부흥의 움직임이 크게 고조되었다.10) 미국은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획일화된 기계제품가구에 반(反)하여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전통적 수공예 가구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1960년대를 전후하여 일어나기 시작한 수공예 부흥운동(Craft Revivalism)11)이 미국에서의 현대 아트퍼니처의 출발점이 되었다. 미국 수공예 부흥운동의 중심에 선 웬드 캐슬(Wendell Castle, 1932~ )과 같은 스튜디오 중심의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예술가들은 전통적인 형태와 기술을 거부하고 가구의 새로운 개념과 조형성을 강조하였으며 가구를 조각과 같은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 올렸다. 특히 웬드 캐슬은 추상적이고 유기적인 형

9) Barbara Jepson, 'Art Furniture', American Craft, 1985, 10, American Craft Council, New York, P67.

10) 정시화, 산업디자인 150년, 서울, 미진사. P. 246

11) 1860년대 미술공예운동에서 보여지는 수공예부흥운동이 기능성에 바탕을 둔 전통적 수공예 기술로의 회귀를 주장하였던 것과는 달리 1960년대 미국에서 나타난 수공예부흥운동은 전통적 수공예 기술을 바탕으로 현대의 조형언어를 찾으려고 노력함으로써 기능성위주가 아닌 자기표현으로서 공예의 예술적인 가능성을 더 탐색하였다.

태와 회화적인 표현의 강조를 통하여 전통의 범주에 도전하는 도발적인 작업들로 가구의 표현양식을 넓혔다.<sup>12)</sup> (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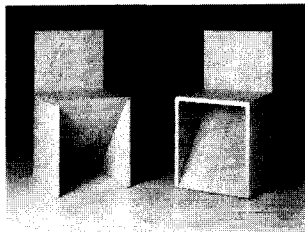
또한 1970년 이후부터는 도널드 저드(Donald Judd)를 비롯한 화가나 조각가 등 아티스트들이 물질에 대한 관심의 자연스러운 부산물로서, 또는 예술가의 정신과 개념을 내재한 오브제로서 또 다른 가구의 가능성을 활발하게 보여주기 시작하였다.(그림 8)

그러나 현대 아트퍼니처의 가장 중요한 축매는 역사성의 차용과 다양한 디자인 요소가 놀랄만하게 뒤섞인 뎀피스 컬렉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13)</sup> 알렉산드로 멘디니(Alessandro Mendini, 1931~ )와 에포레 솟사스(Ettore Sottsass, 1917~ ) 등 전위적인 디자이너들이 주축이 된 스튜디오 알키미아(Studio Alchimia)와 뎀피스(Memphis) 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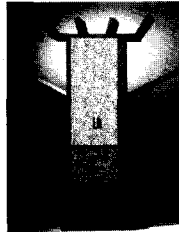


(그림 7) Wendell Castle, Chair with Sport Coat, 1978

의 디자인들은 자유와 창조적 발명의 승고함의 표시로 장식과 색채를 회복하고 인간과 물건사이의 감정적 관계에 집중하였다. 이에 따라 인간의 지성과 감성에 호소할 수 있는 의미를 지닌 가구를 선보임으로서 가구 기능



(그림 8) Donald Judd, Chair, 1983



(그림 9) Ettore Sottsass, Casablanca, 1981.

에 대한 기존 개념을 바꾸거나 새로운 개념을 채택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개인주의 성향의 독창적인 디자이너들이 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현대 아트퍼니처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였다.

### 3. 현대 아트퍼니처의 유형 분석

19세기 중엽 미술공예운동에서부터 그 시원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20세기 전반에 걸쳐 창조적인 아티스트나 디자이너들, 또는 공예가들에 의하여 다양하게 변화, 발전한 아트퍼니처는 현대에 이르러 다양해진 시대 상황에 맞추어 활발하게 도약하고 있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이러한 작업들은 작가들의 작품의도와 이념적 기반에 의해 첫째, 조형예술의 표현 매체로서 아트퍼니처, 둘째, 디자인의 개인성향 추구로서 아트퍼니처, 셋째, 일품공예로서의 아트퍼니처 등 크게 3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 3-1. 조형예술의 표현 매체로서 아트퍼니처

조형예술의 표현매체로서 아트퍼니처는 1913년 이후 레디메이드(Ready-made)로 구체화 된 마르셀 뒤상(Marcel Duchamp, 1887~1968)의 ‘오브제 아트’와 그 이후 나타난 다다(DaDa)의 ‘오브제=물질=예술품’이라는 개념의 탄생으로부터 기인한다. 즉, 20세기초에 이르러 대두된 미술의 자립성, 예술의 자율성이라는 관념으로부터 출발한 실험적인 미술운동들은 그 표현 영역은 물론 사고체계의 확장에 따른 변화를 가져왔고, 다양한 매체들을 미술적 소재로 끌어들이어 새로운 조형적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아티스트들의 가구매체를 이용한 작업들을 촉진시켰고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초현실주의 화가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조형예술의 표현매체로서 아트퍼니처가 등장하게 되었다. 1936년 초현실주의화가

12) [http://www.r20thcentury.com/bios/desIgnner.cfm?article\\_id=41](http://www.r20thcentury.com/bios/desIgnner.cfm?article_id=41) 참조

13) Barbara Jepson, ‘Art Furniture’, *American Craft*, 1985, 10, American Craft Council, New York, P67.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 1904~1989)는 <밀로의 비너스>서랍장과 <Mae West>소파 등, 그 자신이 ‘상징적 기능의 오브제’라고 부른 작품들을 통하여 회화도 조각도 아닌 새로운 조형개념으로서의 아트퍼니처를 선보였으며(그림 10) 예술적 소재와 일상적 사물과의 간격을 없애는 공헌을 하였다.

이러한 조형예술의 표현매체로서 가구에 대한 실험은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팝아트와 추상표현주의에 의하여 더욱 다양하게 활성화되면서 일상생활과 예술사이에 놓인 공간을 연결 지으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전개된다. 1960년대 영국 팝아트 계열의 작가 앨런 존스(Allen Jones, 1937~)는 마네킹을 이용하여 다양한 가구들을 제작하였다.(그림 11)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인간의 ‘성’에 대한 허위의식을 고발하려는 의도를 조각이자 가구인 작품에 표현함으로써 그 작품을 보거나 사용하는 대중들의 생활 속에 작가의 의지가 자연스럽게 침투되길 원했다. 즉, 일상 속으로 침범해 들어온 미술의 영역확대가 가져온 표현방식의 하나로서 아트퍼니처가 제작됨으로서 예술과 일상의 경계가 사라져 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짐 다인(Jim Dine, 1935~)이나 로이 리히텐슈타인(Roy Richtenstein, 1923~1997)과 같은 팝아트 계열의 아티스트들이 은유와 동시에 기능을 가진 조각품으로서 아트퍼니처를 제작하였다.

그 이후 새로운 표현주의 미술이 등장하고 회화의 재발견이 이루어진 1970년대의 전환점에 이르러 아트오브제의 비물질화와 개념적인 예술 형태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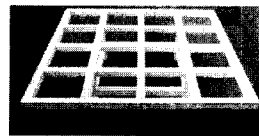
(그림 10) Dali, Mae West Sofa, 1936



(그림 11) Allen Jones, Chair-Sculpture, 1969

함께 가구로 표현되는 조각이나 오브제 아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부터는 수많은 화가나 조각가들이 그들의 아이디어와 감성을 아트퍼니처로 표현하였다. 도널드 저드(Donald Judd, 1928~1994), 솔 르윗(Sol Lewitt, 1928~)과 같은 아티스트들은 미니멀 아트의 전성기였던 1960년대에 이미 아트퍼니처를 만들었던 세대에 속하지만<sup>14)</sup> 1980년대에 이르러서 왕성한 활동을 보인다. 도널드 저드(Donald Judd)의 경우 극도의 단순성과 크기, 비례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통하여 기능과 공간에 충실한 실용적인 가구를 제작하였다. 그 결과 그의 가구작품은 엄격한 극소의 미(美)원칙과 기능적인 미학이 객관화되어 나타난다. 솔 르윗(Sol Lewitt)의 가구 작품 역시 자기작업의 필연적인 연속으로서 공간의 필요에 성실하게 대응하는 실용적인 가구들을 제작하였다.(그림 12) 즉, 의자는 의자이다 라는 사물의 본질적인 물음에 충실하게 답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 자체가 철저하게 의자인 척하는 조각, 즉 평범함과 단순함으로 가장한 비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예술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술의 영역에 구애받지 않고 조각, 디자인, 인테리어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차원 높은 조형세계를 추구한 조각가 이사무 노구치(Isamu Noguchi, 1904~1988)는 공간을 조각한다고 하는 그의 예술철학을 다양한 아트퍼니처로 표현하였다.(그림 13) “...나는 기능이 형태를 결정하고 또한 새로운 기능



(그림 12) Sol Lewitt, Table, 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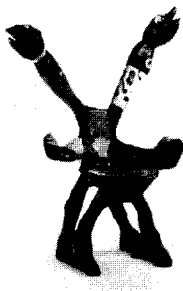


(그림 13) Isamu Noguchi, Bench, 1980

14) Hubb Mous, Furniture as Art, Museum Boymans-van Beuningen: Rotterdam. P.11

의 발명은 그와 연관된 예술세계로의 열려진 하나의 가능성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과연 그런 것을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 발명 또한 하나의 예술행위인 것이다...”<sup>15)</sup> 이와 같은 가구작품들의 제작의도에 대한 언급에서처럼 그는 기능이 있는 조각작품의 개념으로 아트퍼니처를 규정하고 있다. 특유의 풍부한 색감과 유기체 형상의 조각으로 유명한 조각가 니키 드 생팔(Niki de Saint Phalle, 1930~ ) 역시 기능이 있는 조각작품의 개념으로 아트퍼니처를 제작하였다. (그림 14)

이상과 같이 현재 행해지고 있는 조형예술의 표현매체로서 아트퍼니처는 아티스트의 제작의도와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 다양한 표현양상을 보이고 있다. 작가의 예술적 동기에 의한 표현방식의 방법론적 선택으로서 작품의 기능적 역할이나 사용의 목적을



(그림 14)  
Niki de Saint Phalle,  
Chair, 1980

염두에 두고 이를 회화적 의미나 조각적 형상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조형예술의 표현매체로서 아트퍼니처의 의미는 소재나 기술적 발전에 바탕을 둔 디자인과는 달리 작품이 지니는 개념과 조형성에 있으며 상호작용이 가능한 예술 작품으로서 존재한다.

### 3-2. 디자인의 개성 추구로서 아트퍼니처

모던 디자인의 기능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스튜디오 알키미아와 뎀피스의 디자이너들-에토레 소트사스(Ettore Sottsass, 1917~ ), 알렉산드로 멘디니(Alessandro Mendini, 1931~ ), 미켈레 데 루키(Michele de Lucchi, 1951~ ), 안드레아 브란지

(Andrea Branzi, 1938~ ) 등-은 혼성모방, 패러디, 유모어, 사회풍자, 장식의 회복 등으로 대표되는 포스트모던 디자인의 특징들을 건축을 포함한 광범위한 디자인 전반에 걸쳐 실현시켰다. 그들의 실험적이고 진위적인 사고는 창조적 예술성을 가구에 도입함으로써 인간의 감성과 휴머니티가 살아있는 예술로서 아트퍼니처의 발전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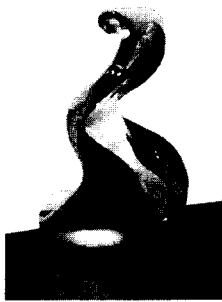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디자이너들의 창조성이 더욱 다양해지면서 단일화된 흐름이 형성되기보다는 상이한 개성을 가진 디자이너들에 의해 개인주의(Individualism) 성향이 극대화되었다. 1990년대 개인주의 성향의 디자이너들은 개개의 가구디자인 속에서 자신의 개별성 표현을 강조하면서 아트퍼니처 성향의 가구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독창적인 아트퍼니처 디자이너들에게 있어 조형성과 생산성 사이의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게 받아들여진다. 아이디어의 현실화과정에서 독자적인 공방을 설립하고 그들의 창조적 역량을 보여주는 아트퍼니처를 선보임으로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마케팅을 전개시키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창의력 있는 디자이너로 인정받는 론 아라드(Ron Arad, 1951~ )는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아트퍼니처로 조형과 기능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을 보여준다. 그의 디자인은 실용과 기능이라는 디자인에서의 일 반적이고 합리적인 입장보다는 조각이 지니는 창조적 자유를 선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강철로 만들어진 <A.Y.O.R> 의자는 정확히 비 대칭점까지 굽어져 있어, 앉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능을 짐작할 수 없는 조각작품으로 존재하지만 중심에 자리잡은 무게에 의해 사람이 앉을 경우 흔들의자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된다.(그림 15) 그리고 이러한 아이디어와 창조력을 바탕으로 한 아트퍼니처는 무한한 제품디자인으로의 가능성을 여는 원

15) Denise Domergue, Artist Design Furniture, Harry N. Abrams, London, 1984, P.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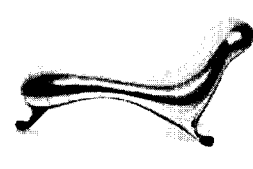
(그림 15)  
Ron Arad,  
A.Y.O.R., 1990.



(그림 16)  
Gaetano Pesce,  
Pratt Chair, 1983



(그림 17)  
Garousde & Bonett,  
Tripod Floor Lamp,  
Cage, Chair, 1981.



(그림 18)  
Marc Newson,  
Lockheed Lounge,  
1986-88

천이 된다. 전위적인 디자이너 게타노 페세(Gaetano Pesce, 1939~) 역시 창조적인 작업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제품화에 성공하고 있는 아트페니처 디자이너이다.(그림 16) 이러한 새로운 디자인 문화의 전개는 파리, 뉴욕을 중심으로 수많은 디자인 갤러리들의 등장을 낳았다. 또한 갤러리들은 디자이너들의 등용 문 역할과 매스컴과 접촉하는 창구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더 나아가 가구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가로슈테와 보네트(Garousde & Bonett),(그림 17) 마크 뉴슨(Marc Newson, 1963~),(그림 18) 보렉 시펙(Borek Sipek, 1949~)과 같은 디자이너들도 다양한 측면에서의 아트페니처를 제안하고 있으며, 인간의 감성에 접근하는 디자인의 개인성향 추구로

서 아트페니처의 영역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 3-3. 일품공예로서의 아트페니처

전통적 수공예 기술을 바탕으로 현대의 조형언어를 찾고자 하는 일품공예로서의 아트페니처는 20세기 초 미술에 있어서 오브제라는 개념이 1960년대 미국의 '수공예 부흥운동(Craft Revivalism)'을 전후로 공예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즉, 공예의 개념을 예술적 차원으로 격상시키려는 의지는 오브제 미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기능성보다는 순수 감상적 조형물의 형태로 조형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낳았다. 당시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자유 표현주의 양식이 유행하였던 미국에서는 수공예 부흥운동과 함께 예술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공예와 미술, 디자인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졌으며 공예가들은 가구의 새로운 의미와 심미적 가능성에 도전하기 시작하였다.

1966년 Museum of Contemporary Craft에서 열린 [Fantasy Furniture]전에서 웬드 캐슬(Wendell Castle, 1932~)과 토미 심슨(Tommy Simpson, 1939~)은 전통적인 가구의 형태와 기술을 거부하고, 새로운 조각 기법을 이용하여 조형성이 강조된 오브제형 가구들을 선보임으로서 미국에서 아트페니처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전시에서 웬드 캐슬은 실용적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숙련된 조각 기술을 바탕으로 조형성이 강조된 일품공예로서 아트페니처를 제작하였다. 이 후 웬드 캐슬은 미국에서 수공예에 바탕을 둔 아트페니처가 발전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1960년대의 수공예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스튜디오 중심의 공예가들에 이어 1970년대에는 대학에서 가구를 전공하고 예술표현으로서의 가구를 추구한 에드워드 쥬카(Edward Zucca, 1946~), 알폰스 메타(Alphonse Mattia, 1947~), 존 세더퀴스트



(그림 19)  
John Cederquist,  
Le Fleuron  
Manquant,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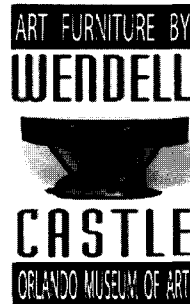
(그림 20)  
Thomas Loeser,  
Bean Cabinet, 1992

(John Cederquist, 1946~ ), 토마스 로저 (Thomas Loeser, 1956~ ), 로잔느 서머슨 (Rosanne Somerson, 1954~ )과 같은 차세대 아트퍼니처 작가들이 등장하였다.(그림 19, 20) 이와 함께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가구디자이너와 공예가, 조각가들이 개인적인 표현과 시각적인 이미지가 강조된 조형성 있는 가구를 제작함으로써 'New Wave'<sup>16)</sup> 현상을 일으켰다. 이로 인하여 80년대 전반에 걸쳐 공예갤러리들의 꾸준한 증가가 있었으며 1985년에는 국가적인 지원하에 Society of Furniture Artist(SOFA)가 형성되었다.<sup>17)</sup> 또한 1994년부터 Chicago와 Miami, New York 등지에서 해마다 열리는 Sculpture Objects & Functional Art(SOFA)<sup>18)</sup> 박람회에서는 미술, 도자기, 유리,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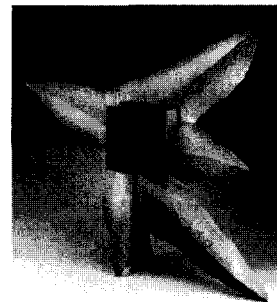
16) 'New Wave'란 Dona Z. Meilach이 그의 저서 『Woodworking, The New Wave』에서 당시의 목공예분야에서 유행하고 있던 가구 및 기능적인 조각, 오브제 등에 관한 신경향을 일컬으며 사용하였던 용어이다., Dona Z. Meilach Woodworking The New Wave, Crown Publishers, New York. 1981. PP.X-XII 참조.

17) Society of Furniture Artist newsletter 1 (spring 1986), pp.1-3.  
Edward S. Cooke, New American Furniture, Museum Of Fine Arts, Boston, 1990.에서 재인용.

18) 예술가와 큐레이터, 수집가들에게 Sculpture Objects와 Functional Art와 관련된 최근의 전시회나 그룹활동, 출판물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소개 및 판매하기 위해 조직된



(그림 21)  
Art Furniture by  
Wendell Castle,  
Orlando Museum  
of Art, 1995



(그림 22)  
Wendell Castle,  
Star Bright, 1995

속, 섬유 분야와 함께 아트퍼니처 분야가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서 위치를 확립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미국의 아트퍼니처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웬드 캐슬은 자신의 아트퍼니처 제작의 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나는 가구를 만든다. 그러나 나의 활동은 조각이다. 나는 가구와 조각사이의 공간에 놓이길 좋아한다. 왜냐하면 그 영역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sup>19)</sup> 이러한 그의 사고는 현대 아트퍼니처의 의미와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1995년 Orlando 박물관에서 열린 [Art Furniture by Wendell Castle] 전을 통하여 아트퍼니처의 현대적 위상을 확실히 구축하고 있다.(그림 21, 22) 이와 같이 현대에 이르러 일품공예로서의 아트퍼니처는 예술, 디자인, 공예기술의 접목을 통하여 새로운 예술 장르로 부상하고 있다.

#### 4.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트퍼니처는 1860

expo로서 대중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예술품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http://www.sofaexpo.com> 참조

19) <http://www.albersgallery.com/Castle1.html>

유형 분류	작품 특징	창작 주체
조형예술의 표현매체로서 아트퍼니처	예술가의 주관적 사고와 감성의 표현	화가, 조각가
디자인의 개성 추구로서 아트퍼니처	디자인의 실험성과 전위적 사고의 실현	디자이너, 건축가
일품공예로서의 아트퍼니처	장인정신의 추구하고 공예 개념의 확장	공예가, 장인

<표 1> 현대 아트퍼니처의 유형별 특징 분석

년대 미술공예운동(Arts & Crafts Movement)에서 그 시원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20세기 전반에 걸쳐 창조적인 아티스트나 디자이너, 또는 공예가들에 의하여 가구의 보편적 가치에서 일탈된 새로운 표현양식과 언어로 예술로서의 가구 개념을 확장시켰다. 아트퍼니처는 일상생활과 예술을 연결지으려 했던 하나의 예술운동으로, 현대에 이르러서는 조형예술의 표현매체나 디자인 분야의 개성 추구, 그리고 일품공예로서 다양한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에 따른 현대 아트퍼니처의 유형별 특징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이와 같이 현대 아트퍼니처는 예술적 사고와 감성, 디자인의 개념과 형태, 공예의 기법과 재료의 이해 등, 세 가지 관점에 대한 상호작용과 대립을 통하여 미래 가구문화에 관한 새로운 사고와 활력을 표출한다.

따라서 현대 아트퍼니처가 가지는 의미는 첫째, 가구 개념의 예술적 영역으로서의 확장, 둘째, 예술의 대중화에 기여함으로써 인간 삶의 질적 향상 추구, 셋째, 미래 가구문화의 새로운 방향 제시에 있다.

현대에 이르러 어떠한 영역에도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인간의 사고와 감성에 접근하고자 하는 아트퍼니처의 세계는 21세기에 이르러 독자적인 예술 장르로서 새로운 가구문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 참 고 문 헌

1. 정시화, 산업디자인 150년, 미진사, 서울, 1991
2. John F. Pile, 박진배 역, 미래디자인 선언, 도서출판 가인, 서울, 1995
3. Charles Jencks, The Language of Post-Modern Architecture, 대림문화사, 서울, 1991
4. Barbara Jepson, 「Art Furniture」, American Craft, 1985, 10, American Craft Council, New York. 1985
5. Charles Boyce, Dictionary of Furniture, Facts on File Publications, New York, 1985.
6. Charles L. Eastlake, Hints on Household Taste, Dover Pub. New York, 1986.
7. Claire Downey, Neo Furniture, Rizzoli, New York, 1992
8. Denise Domergue, Artist Design Furniture, Harry N. Abrams, New York 1984, P.26
9. Dona Z. Meilach, Woodworking, The New Wave, Crown Pub. New York, 1981.
10. Edward S. Cooke, New American Furniture, Museum Of Fine Arts, Boston, 1990.

11. Hubb Mous, Furniture as Art, Museum Boymans-van Beuningen, Rotterdam. 1988.
12. James Wheeler외, The History of Furniture, Orbis Publish Ltd, London, 1976.
13. Karl Mang, History of Modern Furniture, Harry N. Abrams Inc, New York, 1979.
14. Nikolais Pevsner, Studies in Art, Architecture and Design, Victorian and After, Princeton University Press, New Jersey, 1968.
15. [http://www.r20thcentury.com/bios/designer.cfm?article\\_id=41](http://www.r20thcentury.com/bios/designer.cfm?article_id=41)
16. [www.albersgallery.com/Castle1.html](http://www.albersgallery.com/Castle1.html)
17. [www.r20thcentury.com/bios/designer.cfm?article\\_id=41](http://www.r20thcentury.com/bios/designer.cfm?article_id=41)
18. [www.sofaexpo.com](http://www.sofaexpo.com)
19. [www.mbam.qc.ca/madm/kuramata](http://www.mbam.qc.ca/madm/kuramata)